

2019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망

I. 국내외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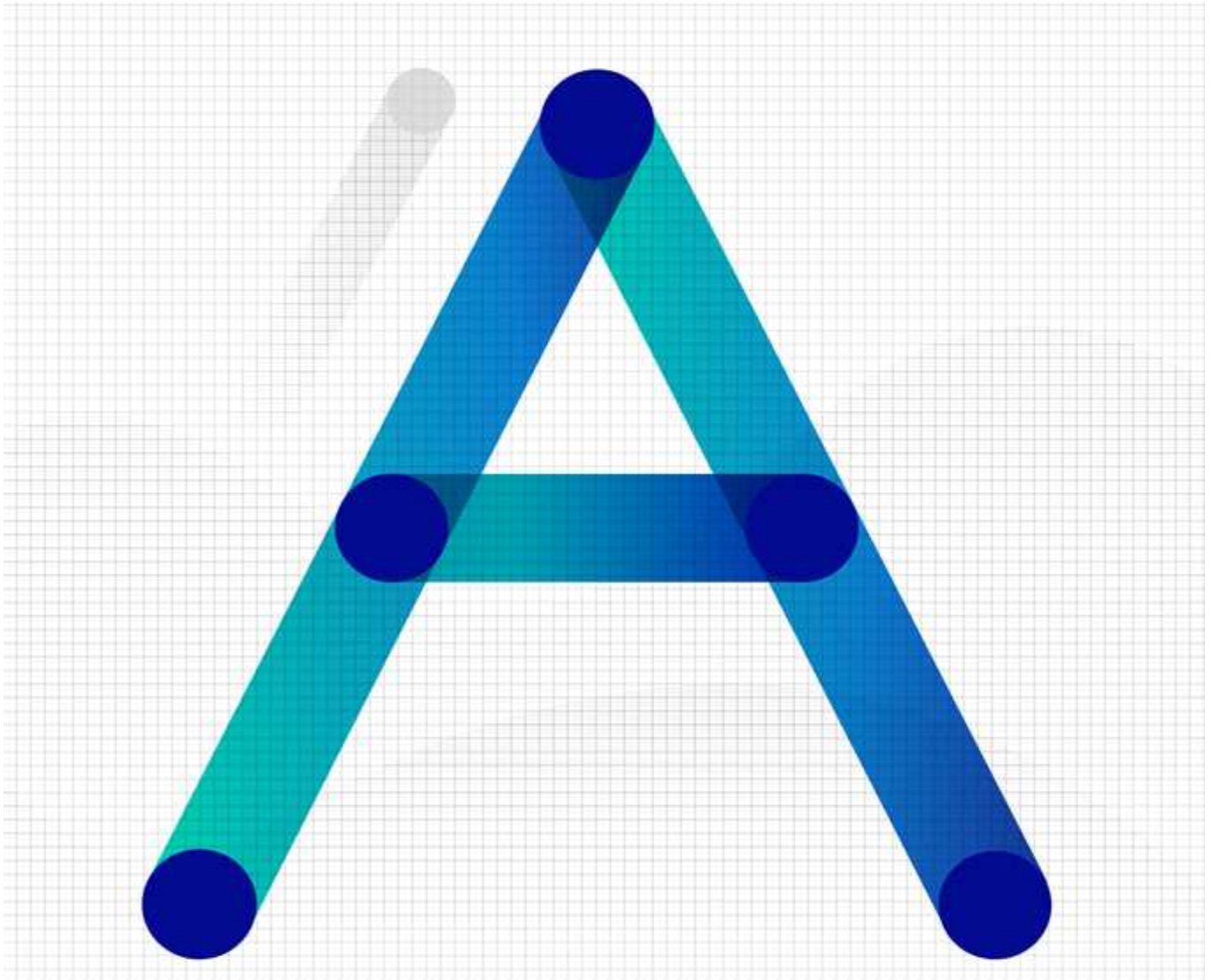
1. 세계경제전망
2. 국내경제전망

II. 주요 산업별 수출전망

1. 주요 수주산업
2. 주력 수출산업
3. 혁신성장산업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작 성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5-5327)
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조 사 역 홍성준
(6255-5709)
sj_hong@koreaexim.go.kr



<요 약>

I. 대외 경제환경

□ 2019년 세계 경제는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확장세가 이어지겠으나, 무역긴장 고조, 신흥국 경제 불안정 가능성 등으로 '18년과 유사한 3%대 중후반 성장 전망

- (미국) 소비·투자 호조 영향으로 2018년 2.9% 성장을 나타냈으나, 2019년에는 미중 통상 마찰 확산 가능성으로 이보다 낮은 2%대 중반 성장 예상
- (유럽) 수출 약화 등으로 경기 하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은 2019년 정책금리인상 계획까지 더해져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1%대 후반 성장 전망
- (신흥국) 유가 상승 및 인도 경제 호조세 지속 등으로 성장 활력은 이어지겠으나, 미국 금리인상 지속과 미·중간 통상마찰 등의 영향으로 전년(4.7%)과 유사한 4%대 후반 성장 전망

세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IMF	OECD	한국은행	LG경제 연구소		
전세계	3.7	3.7	3.7	3.6	3.5	3.6	3.6
선진국	2.4	2.1	-	-	2.1	1.7	1.7
미국	2.9	2.5	2.7	2.5	2.5	1.8	1.7
유럽	2.0	1.9	1.9	1.8	1.6	1.8	1.7
신흥국	4.7	4.7	-	-	4.7	4.9	4.9
중국	6.6	6.2	6.4	6.5	6.3	6.2	6.0

주 : '18년 및 '20~'21년 전망치는 IMF 기준



Ⅱ. 대내 경제환경

□ 미중 무역분쟁·반도체 효과 축소 등으로 2% 중후반 성장 전망

-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성장세는 이어지겠으나, 미중 무역분쟁 등 수출 여건 악화, 반도체 효과 축소 등으로 전년대 유사한 2%대 중후반대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 (IMF) 2.8%('18f) → 2.6%('19f), (한은) 2.7%('18f) → 2.7%('19f)

- '18년 성장을 이끈 반도체 수출 및 투자 효과는 줄어들겠으나, 임금소득 개선 및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정책 영향으로 고용과 민간소비 등은 회복될 전망

- 수출은 주요국 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18년(6% 내외) 보다는 소폭 줄어들겠으나, 반도체 증가세 유지 및 조선 수출 증가세 전환으로 4~5% 증가 전망

- (교역신장률) 미중 무역갈등 영향 본격화 및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의 투자 지연이 늘어나 '18년(4.2%)보다 감소한 4% 수준성장 전망

* 세계교역신장률 : 12.5%('10)→2.2%('16)→5.2%('17)→4.2%('18f)→4.0%('19f)

- 고용은 건설경기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제한요인은 존재하나, 제조업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위축이 완화되고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인원은 전년(9만명)보다 증가한 16만명대 전망
-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 마무리, 미중 무역분쟁 등 투자 여건 개선은 미진하나, 정보통신업·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 '18년(-0.3%)보다 증가한 2%대 중반 성장 전망

실질 GDP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은	LGERI	IMF
국 내 총 생 산(GDP)	3.1	2.8	2.6	2.7	2.7	2.5	2.6
민 간 소 비 지 출	2.6	3.2	2.3	2.7	2.7	2.6	-
설 비 투 자	14.6	1.9	-2.5	-0.3	2.5	-2.0	-
실 업 륜	3.7	4.1	3.6	3.8	3.8	3.9	3.7
물 가	1.9	1.4	1.7	1.6	1.7	1.4	1.8

주: 2017년, 2018년 전망치는 한국은행 전망(10월) 기준



□ 산업이슈

-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장기화로 수출둔화폭 확대 가능성
 - 미중간 무역분쟁 확대시 2019년 미국 GDP는 0.9%, 중국 GDP는 1.6% 하락, 2020년에는 세계 GDP가 0.8% 이상 하락 전망(IMF)
 - 중국의 대미수출 10% 감소시, 한국 총수출은 對中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아 총 0.36% 감소 추정(한국은행)
-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으로 자동차 및 부품, ICT 등 국내 핵심 산업 부진 장기화 우려
 -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경우 미국 및 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경쟁에서도 중국 대비 열위
 - ICT 산업은 디스플레이, 휴대폰의 對中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반도체도 글로벌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쟁 심화
- 고유가(배럴당 70달러 이상) 기조 정착시 업종별 영향 차별화
 - 납사가격 상승 등 마진악화로 석유화학의 위축, 자동차시장 성장률 둔화, 해운업 수익성 악화 등 우려
 - 반면, 고효율선박 수요 증가와 해양플랜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조선업은 수혜 예상



Ⅲ. 주요 산업별 전망

1. 주요 수주산업

□ 해외건설 전년 수준 유지, 조선업은 해양 플랜트 중심으로 소폭 개선

- 해외건설 산업은 유가상승 등으로 중동발주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및 터키 등 후발업체의 부상으로 수주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져 '19년 수주액은 전년 수준인 300억 달러 전망
- 조선 산업은 폐선증가에 따른 대체수요 등이 기대되나, '18년 세계시황 성장 대비 국내 수주 증가폭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선박수주는 약 2% 감소한 214억 달러 수주 전망
- 해양플랜트 산업은 유가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과 점진적 수요확대로 해양가스설비와 석유생산설비 등 3~4기 수주 가능 전망
- 해운 산업은 세계교역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의 선박발주 부진에 의한 공급압력 감소로 완만한 개선흐름이 지속될 전망

주요 수주산업의 수주 전망

(억 달러)

구 분	'17년	'18년	'19년	'20~'22년
해외건설	285	300	300	250~350
선박	144	219	214	250~280
해양플랜트	28	35	50	60~90
해운(BDI 지수)	1,145	1,400	1,550	1,300~2,000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2. 주력 수출산업

□ 세계 경기둔화, 보호무역주의 확대, 경쟁심화 등으로 성장세 약화

- ICT 산업 중 반도체는 경쟁력을 유지하나 디스플레이·휴대폰 등의 경쟁심화로 수출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2,350억 달러 전망
- 자동차·부품 산업은 미국·중국 등 주력시장 수출 부진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여, 자동차는 400억 달러, 부품은 215억 달러 수출 전망
- 일반기계 산업은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수출 여건 악화로 '19년 수출 증가율은 '18년의 8%보다 둔화된 4% 수준 전망
- 석유화학 산업은 '19년 평균유가는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에탄 크래커 설비 가동에 따른 경쟁심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둔화로 약 2% 감소한 480억 달러 수출 전망
- 철강 산업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제품 가격 상향 안정화로 수출은 '18년 대비 1.8% 증가한 341억 달러 전망

주력 수출산업의 수출 전망

(억 달러,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22년 연평균증가율
ICT	1,980 (21.9)	2,260 (14.4)	2,350 (3.9)	4%
자동차 및 부품	647 (△1.4)	629 (△2.8)	615 (△2.2)	1%
일반기계	486 (10.1)	525 (8.0)	546 (4.0)	4%
석유화학	447 (23.6)	490 (9.6)	480 (△2.0)	2%
철강	342 (20)	335 (△2.0)	341 (1.8)	2%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3. 혁신성장산업

□ 글로벌 시장 성장세 지속으로 견조한 수출증가세 유지

- 콘텐츠 산업은 캐릭터·방송·음악 등의 수출 호조로 수출은 '18년 대비 약 21% 증가 예상
- 화장품 산업은 동남아, 미국 등으로 수출지역 다변화 노력이 강화되면서 수출은 '18년 대비 약 15% 증가 예상
- 산업용 로봇 산업은 국내 산업의 해외 생산기지 투자 확대에 의한 산업용 로봇 수요 증대 및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은 10% 증가 예상
- 의약품 산업은 국내 제약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등의 수출 안정화로 수출은 '18년 대비 10% 증가 예상
-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본격 성장 단계 진입, 국내 기업들의 경쟁우위 등으로 2019년 수출은 55억 달러 전망
- 태양광 산업은 2019년 글로벌 태양광시장 호황에 따라 태양광 수출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30억 달러 전망
- 항공기 및 부품 산업은 항공기 수주 부진, 부품 산업 성장 등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3% 증가한 28억 달러 전망

혁신성장산업의 수출 전망

(억 달러,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22년 연평균성장률
콘텐츠	69 (14.7)	87 (26.2)	105 (20.7)	9%
화장품	50 (18.3)	61 (23.0)	70 (14.8)	15%
산업용 로봇	2.0 (10.8)	1.6 (△18.0)	1.8 (10.0)	6%
의약품	32 (15.8)	38 (19.9)	42 (10.5)	10%
2차전지	35.2 (18.7)	45 (15.2)	55 (22.2)	10%
태양광	31 (0)	27 (△14.3)	30 (11.1)	7%
항공기 및 부품	31.2 (37.4)	27 (△13.5)	28 (3.7)	4%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I. 국내외 경제전망

1. 세계경제전망

가. 경제 성장

□ 세계경제 성장률 3%대 중후반으로 전년대 유사한 수준

- 2019년 세계경제는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확장세가 이어지겠으나, 무역 긴장 고조, 신흥국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2018년과 유사한 3%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미국경제는 2018년 소비·투자 호조 영향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2.9%의 성장률을 보이겠으나, 2019년에는 미중 통상 마찰 확산 영향으로 이보다 낮은 2%대 중반 성장 전망
 - 향후 물가상승압력 확대에 금리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경기 상승을 주도하던 유동성 효과도 점차 감소해,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1% 후반대 성장 예측
- 유럽경제는 수출 약화 등으로 2018년 상반기부터 하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며, 2019년에는 정책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져 전년(2.0%)보다 소폭 하락한 1%대 후반 성장 전망
 -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 교착, 부채율 높은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 심화 및 이로 인한 EU와 갈등 확대 등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수준(1%대 중반)으로 성장률 하락 가능
- 일본경제는 기업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 및 소비 확대에 이어지지 못해 2018년 1%대 초반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19년에도 성장세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 경제는 유가 상승 및 인도 경제 호조세 지속 등으로 성장 활력은 이어지겠으나, 미국 금리인상 지속과 미·중간 통상마찰,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안 등의 영향으로 교역 및 금융 불안정성이 가속화돼 2019년에는 전년(4.7%)과 유사한 4%대 후반 성장 전망
 - 중국경제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수출 및 기업투자 감소, 기업 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등의 영향으로 2018년(6.6%)보다 하락한 6%대 초반 성장 전망



세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구 분	2018년 (IMF 전망)	2019년 전망			
		IMF	OECD	한국은행	LGERI
전세계	3.7	3.7	3.7	3.6	3.5
선진국	2.4	2.1	-	-	2.1
미국	2.9	2.5	2.7	2.5	2.5
유로	2.0	1.9	1.9	1.8	1.6
일본	1.1	0.9	1.2	0.9	0.8
개도국	4.7	4.7	-	-	4.7
아시아	6.5	6.3	-	-	6.4
중국	6.6	6.2	6.4	6.5	6.3
인도	7.3	7.4	7.4	-	7.5

주: IMF(10월), 한국은행(10월), OECD(9월), LG경제연구원(9월) 전망 기준

• 위험요인 :

- ① 미중간 무역갈등 고조로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투자 위축이 심화되는 등 글로벌 밸류 체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
 - IMF는 무역분쟁이 현 상태보다 심화돼 자동차 및 소매품 등으로까지 관세 부과가 확대될 경우, 2019년 미국 GDP는 0.9%, 중국 GDP는 1.6% 하락하고, 2020년에는 세계 GDP가 0.8%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
- ② 미국 물가 상승폭 확대에 따른 금리인상 가속화로 신흥국 자산가격 급변동, 자본 유출 증대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③ 이탈리아, 터키,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정책 불확실성 증대, 브렉시트 협상 난항 등 정치적 불안 요인 확대에 재정 악화, 투자 위축 심화 가능성
- ④ 인구 노령화, 생산성 개선 지연, 임금 상승력 약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선진국의 중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가능성



나. 세계교역

□ 2019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 증가율 4%대 초반으로 소폭 하락

- 2018년 세계 교역량은 2017년 큰 폭의 상승(5.2%)에 의한 기저효과와 불확실한 정책 환경에 따른 투자 위축 영향으로 4.2%로 증가율 하락
- 2019년 교역 증가율은 미중 무역갈등 영향 본격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의 투자 지연 확대로 전년보다 더 감소한 4%대 초반에 머무를 전망
- 선진국의 수출 증가율은 3.1%, 수입은 4.0%로 2018년(수출 : 3.4%, 수입 : 3.7%)보다 수출이 하락할 전망이고,
- 개도국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모두 4.8%로 2018년(수출 : 4.7%, 수입 : 6.0%) 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하락 전망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 물량 기준) 신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IMF	World Bank	IMF	World Bank	IMF	World Bank
교역신장률	5.2	4.8	4.2	4.3	4.0	4.2
수 출						
선진경제권	4.4	-	3.4	-	3.1	-
개 도 국	6.9	-	4.7	-	4.8	-
수 입						
선진경제권	4.2	-	3.7	-	4.0	-
개 도 국	7.0	-	6.0	-	4.8	-

자료: IMF(10월), World Bank(6월) 전망 기준



다. 국제금융시장

□ 국제 금리

- 2019년에는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긴축 흐름이 유로존, 신흥국 등으로 확산되며 정책금리 인상
 - 2018년 세 차례의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은 연내 추가 1차례, 2019년 세 차례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 호황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해 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 동향에 따라 인상 속도는 조정될 전망
 - 유로존도 2018년말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2019년 하반기 이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나,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장기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미국채수익률(10년물)은 2019년중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연말 3% 중후반대로 상승할 전망
- 신흥국 위기 발생시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

주요 국제금리 전망

단위: %

구 분	2018년 평균	2019년 1/4	2019년 2/4	2019년 3/4	2019년 4/4	비 고
미 국	2.96	3.43	3.51	3.56	3.64	T/B(10년물)
일 본	0.09	0.14	0.15	0.11	0.09	JGB(10년물)
독 일	0.50	0.74	0.87	0.97	1.07	Bund(10년물)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18.10.16일자 기준)

□ 환 율

- 미달러화는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및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그러나 유로존 등에서 통화긴축에 나서고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강달러 경계감 등으로 2019년 하반기 들어 약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 상존



- 유로화는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일 전망
- 일본 엔화는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늦추어 지는 등 주요 선진국과 통화정책 차별화로 약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나, 안전자산 선호 및 미국 정부의 엔저 정책 제동 가능성 등으로 점진적 강세 전환 예상
- 중국 위안화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및 신흥국 경기 둔화 등 약세 요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조작국 지정 공세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 존재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국제환율 전망 평균

구 분	2018년 평균	2019년 1/4	2019년 2/4	2019년 3/4	2019년 4/4
엔/달러환율	111	111	110	108	108
달러/유로환율	1.18	1.18	1.20	1.22	1.21
위안/달러환율	6.67	6.90	6.85	6.80	6.75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18.10.16일자 기준), 분기값은 종가 기준

□ 국제유가

- 2018년 중 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 원유수출 감소, OPEC 감산 완화 거부 등으로 하반기 이후 상승세 지속하며 9월말 배럴당 80달러대 돌파, '14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84.44/bbl, 두바이유, 10.4일)

※ 최근 2개월간 두바이유 가격 추이(\$/bbl): (8.15일) 70.66 → (9.14일) 76.31 → (10.15일) 79.30

- 5월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파기로 인한 이란산 원유수출 감소분을 당초 30만~40만 b/d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4월 이후 이란산 원유 공급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여 11월 이란 제재 발효 시에는 약 150만 b/d 이상의 수출물량 감소가 가능할 전망
- OPEC, 러시아 등 산유국은 9월 23일 알제리 회의에서 원유수요 증가세 둔화 전망과 이에 따른 2014년 공급과잉 재발 우려 등으로 추가 감산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불안감 증폭
- 미국 원유생산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재고감소와 최근 원유시추기 수 증가세 정체도 유가상승에 일조



- 2018년 10월 초 이후 공급차질 불안감 해소,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수요 증가세 둔화로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높은 수준 지속 중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석유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 주요국 원유생산량 증가 등으로 유가가 하락하여 11월 5일 두바이유 \$71.2/bbl 기록
- 2018년 11월 5일, 이란 제재가 발효되었으나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석유수입 금지 예외 인정으로 이란발 공급차질 우려가 약화되며 유가급등 가능성은 낮아짐
- 2018년 4분기는 유가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배럴당 70달러 중반대 수준, 2018년 연평균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수준 전망
- 2019년 유가는 공급우려감 해소 등으로 2018년 4분기 유가대비 하락하여, 연평균 유가는 2018년 연평균가격과 유사한 수준 전망
- 이란 및 베네수엘라 공급차질과 견조한 수요 증가 등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OPEC, 러시아 등의 공급증가와 미국 원유생산량 증가세 지속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가능성으로 급등세 지속은 어려울 것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bbl

유종	2018년		2019년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브렌트	75.9	73.12	71.00	72.63	73.03	71.00	71.92
WTI	66.44	66.79	62.00	63.63	66.66	67.00	64.85

주) EIA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 국내경제전망

가. 경제 성장

□ 경제성장률

- 2019년도 국내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성장세는 이어지겠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 전년 성장을 이끈 반도체 효과 축소 등으로 전년(2.7%)과 유사한 2%대 중후반 성장 전망
- 민간소비는 임금소득 개선 및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정부 정책 영향으로 꾸준히 개선되겠으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전년(2.7%)과 유사한 2%대 중후반 증가 전망
- 설비투자는 전년 설비투자를 견인한 반도체 투자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지연되겠으나, 정보통신업,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 전년(-0.3%)보다 증가한 2%대 중반 성장 전망

□ 고용과 물가

- 2019년 고용은 건설 경기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 제한 요인은 존재하나, 제조업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시장 위축이 완화되고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9만명)보다 증가한 16만명대 전망
- 실업률은 2018년(3.8%, 한은 전망)과 유사한 3.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소비자물가는 2018년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 및 국제 유가 가격 상승, 공공서비스 가격 및 명목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1.6%)보다 상승한 1%대 중후반 상승 전망

실질 GDP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은	LGERI	IMF
국 내 총 생 산(GDP)	3.1	2.8	2.6	2.7	2.7	2.5	2.6
민 간 소 비 지 출	2.6	3.2	2.3	2.7	2.7	2.6	-
설 비 투 자	14.6	1.9	-2.5	-0.3	2.5	-2.0	-
실 업 률	3.7	4.1	3.6	3.8	3.8	3.9	3.7
물 가	1.9	1.4	1.7	1.6	1.7	1.4	1.8

주: 2017년, 2018년 전망치는 한국은행 전망(10월) 기준



나. 국제수지·수출입

□ 수출전망

- 2019년 수출은 주요국 성장률 전년대비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전년 증가율(6% 내외, 당행 추정)보다는 소폭 줄어들겠으나,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조선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돼 4~5% 증가 전망
- 2018년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황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반도체 단가가 하락세로 전환되고 수요 증가폭도 둔화됨에 따라 2019년에는 상승 추세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품목별로는 자동차,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주력품목의 수출 둔화가 계속 이어지겠으나, 수주 회복으로 조선은 수출 증가세로 전환

□ 수입전망

- 2019년도 수입은 투자 부진 지속 영향으로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서는 축소될 전망이나, 국제 유가 상승세로 3% 내외 증가 전망
- 경상수지는 유가 상승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여행수지 적자 지속, 운송수지 부진 등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전년 (700억 달러)보다 소폭 하락한 620억 달러 수준으로 흑자폭 축소

대외거래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8		2019	
	한국은행	LGERI	한국은행	LGERI
경상수지	700	677	620	650
수 출	6,060	6,110	6,140	6,360
	(5.6)	(6.5)	(1.3)	(4.1)
수 입	5,350	5,402	5,500	5,753
	(11.8)	(12.9)	(2.8)	(6.5)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수출·수입은 통관기준



다. 국내 금융시장

□ 금 리

- 2019년 국내 금리는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정책에 따른 국제 금리 상승세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
- 미국과의 금리 역전 등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 둔화로 기업 자금 수요가 높지 않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 가중 가능성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정될 수 있음.

2019년 금리전망

단위: %

구 분	2018년 평균	2019년 1/4	2019년 2/4	2019년 3/4	2019년 4/4
국고채권(3년물)	2.15	1.99	2.03	2.15	2.19

자료: 2018년 평균 : 금융투자협회('18. 10. 23일자 연평균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2019년 분기별 전망 :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18. 10. 23일자 분기별 종가 기준)

□ 환 율

- 2019년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기 확장세 지속 및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자본 유출 우려 등의 영향으로 2018년보다는 상승한 1,120원/달러 내외 수준 전망
- 미중 무역분쟁 및 미국 환율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달러 약세 흐름이 반영돼 원/달러환율은 일정 범위 내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
-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따라 환율 상승 압력 상쇄에 기여

2019년 환율전망

단위: 원/달러

구 분	2018년 평균	2019년 1/4	2019년 2/4	2019년 3/4	2019년 4/4
원/달러	1,093	1,125	1,114	1,125	1,118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18. 10. 16일자 기준), 분기값은 종가 기준



Ⅱ. 주요산업별 수출전망

1. 주요 수주산업

가. 해외건설·인프라

(1) 해외건설

□ 2018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약 3.4% 증가한 300억달러 내외의 수주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9월까지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22억달러
- 유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동 수주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2% 감소한 75억 달러 예상
- 아시아 지역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프라 관련 수주확대로, 아시아 지역 수주는 전년대비 15.5% 증가한 119억 달러 예상

□ 2019년 해외건설 수주는 2018년 수준인 300억달러 전망

- 유가상승 등으로 중동발주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및 터키 등 후발 업체의 부상으로 수주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음
- 2019년 해외건설 발주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가격·금융 등 해외 건설 산업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 현상 발생,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수주는 제한적일 전망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주액	660 (1.2)	461 (△30.1)	282 (△38.8)	290 (2.8)	222 (4.2)	300 (3.4)	300 (0)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해외건설협회, 2018년 및 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해외건설 수주액은 토목, 건축, 플랜트, O&M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



(2) 인프라

□ 2018년 인프라 수주는 발전 및 담수설비 수주 부진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11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8년 9월까지 인프라 수주액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76억달러
- 2018년 9월까지 도로·항만·철도·댐 등 토목분야 수주액은 42% 증가한 54억달러를 기록했으나, 발전 및 담수설비가 64% 감소한 21억달러에 불과해 전년대비 인프라 수주는 25% 감소

□ 2019년 인프라 수주는 2018년 수준인 11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인프라 수주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및 가스발전 등 발전소 수주가 치열한 경쟁 상황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어, 수주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
- 아시아 지역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 수주 확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선 EPC 위주의 사업형태에서 PPP 등 운영사업 영역으로 밸류체인 확대 필요

인프라 수주 추이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주액	178 (△50.0)	162 (△9.0)	123 (△24)	127 (3.5)	76 (△25)	110 (△13)	110 (0)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인프라 수주액은 도로·교통·항만·공항등 토목분야와 발전, 담수, 전기시설로 구성

자료: 해외건설협회, 2018년 및 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나. 조선해양

(1) 선박(부분품 포함)

□ 2018년 총 선박수주량은 전년대비 약 51% 증가한 1,090만CGT, 수주액은 약 53% 증가한 219억달러 내외가 예상되며, 수출액은 약 53% 감소한 200억달러 내외 추정

- 2018년 9월까지 누적 선박수주량(해양플랜트 제외)은 전년동기대비 76.4% 증가한 950.3만CGT를 기록
 - 동 기간 세계 발주량이 13% 증가한 데 비하여 LNG선 시장 호황과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시장의 양호한 움직임 등으로 한국 조선업의 수주 개선 폭은 전체 시장보다 매우 크게 나타남
 - 여기에 약 140만CGT에 해당하는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역시 한국 조선업 수주개선에 크게 기여함
 - 세계적으로는 유럽의 크루즈선의 발주가 전년 동기대비 41% 감소하였고 벌크선 역시 약 6% 감소하며 유럽, 중국 등의 수주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됨
- 2018년 9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전년 동기대비 75.1% 증가 189.9억달러
- 2018년 9월까지 누적 수출액(해양플랜트 포함)은 전년 동기대비 59.2% 감소한 145억달러
 - 2016년 수주절벽 사태의 영향으로 금년 중 인도할 일감이 크게 부족하여 건조량이 감소하면서 수출도 크게 감소함

□ 2019년 총 선박수주량은 약 5% 감소한 1,030만CGT, 수주액은 약 2% 감소한 214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수출액(해양플랜트 포함)은 약 15% 증가한 230억 달러 내외 전망

- 2019년 선박시장은 하반기 이후 환경규제강화 효과에 따른 폐선증가로 일부 대체수요가 발생하여 시황 개선 전망
- 다만, 한국이 2018년 LNG선의 대량수주와 현대상선 발주특수 등으로 시황에 비하여 많은 수주를 기록한 점과 2019년 LNG선의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주량은 소폭 감소할 전망되나, 시황 개선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세계 신조선시황의 개선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며 한국도 적정 수준의 수주점유율을 유지할 전망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백만CGT, 억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망	
수 주 량 (증 감 률)	10.8 (△15.4)	2.2 (△79.5)	7.2 (224.4)	9.5 (76.4)	10.9 (51.2)	10.3 (△5.1)
수 주 액 (증 감 률)	234 (△21.8)	44 (△81.1)	144 (223.2)	189.9 (75.1)	219 (52.6)	214 (△2.3)
수 출 액* (증 감 률)	401.7 (0.7)	342.7 (△14.7)	421.8 (23.1)	145.2 (△59.2)	200 (△52.6)	230 (15.0)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Clarkson, 산업통상자원부, 전망 및 추정은 해외경제연구소

* 수출액에는 해양플랜트 포함.



(2) 해양플랜트

□ 2018년 해양플랜트¹⁾ 수주는 35억달러 내외의 수주 기대

- 2018년 9월까지 해양플랜트 수주는 10월에 Floating Production Unit(FPU) 1기에 그치는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연말까지 1~3기 정도의 프로젝트의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수주 가능
- 해양플랜트 시장은 유가 상승에 따라 과거 투자보류 프로젝트 등의 생산설비 수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 사업자들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는 아님
- Drill-ship과 같은 시추설비는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가적 발주 기대는 어려우며 소수의 생산설비 위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음
- 싱가포르, 중국 등이 저가입찰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영업 환경은 과거보다 다소 어려워짐

□ 2019년 해양플랜트 수주는 약 50억달러 내외의 수주 기대

-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국내 조선업계는 2019년 5개 내외의 프로젝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설비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3~4기의 수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해양플랜트 수주액 추정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10월 ^P	전망	
수 주 액 (증 감 률)	7.0 (△78.6)	- (△100.0)	28.0	4.5 (△83.9)	35.0 (25.0)	50.0 (42.9)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본고에서는 Drill-ship, FPSO 및 기타 부유식 플랜트만을 집계함.



(3) 해운

□ 2018년 해운업의 업황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선종별로 차별화됨

- 탱커의 경우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증가의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저유가 시기 발주물량이 아직까지 인도되며 시황개선에는 실패함
- 310K급 VLCC 용선료는 3분기까지 1일당 평균 20,773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9% 낮은 수준이었고, 4분기 다소 개선이 예상되어 2018년 평균 21,580달러로 전년대비 20.9% 낮은 수준 추정
- 벌크선은 비교적 양호한 수요와 선박신규 인도의 감소로 전년에 이어 개선추세를 이어감
-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는 3분기까지 평균 1,349로 전년 동기대비 약 3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곡물시즌 등 연말까지 강세를 감안하면 2018년 평균 약 1,400 수준 전망
- 컨테이너선은 2015년 대량 발주된 선박의 인도로 2018년도 시황개선에 실패함
- 중국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 CCFI의 3분기까지 평균치는 810로 전년 동기대비 약 2.9 낮은 상승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4분기 개선추세가 나타나며 2018년 평균은 전년과 유사한 820 내외 추정

□ 2019년은 해운시황은 대부분 선종이 완만하나마 시황개선 추세를 나타낼 전망

- 2019년 해운 물동량 증가율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악재요인으로 2018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 이후 발주된 선박량이 적어 공급증가율이 미미하여 시황 개선 기대
- 탱커의 경우는 310K급 유조선 용선료가 전년대비 약 11% 상승한 1일당 24,000달러 내외가 될 전망
- 벌크선은 BDI가 약 11% 상승한 연평균 1,550내외가 될 전망
- 컨테이너선은 CCFI가 약 7% 상승한 880 수준 전망



해운 평균 운임지수 동향 및 전망

단위: 용선료는 \$/day, 지수,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 ~ 9월 ^p	전 망	
탱커용선료 (상승률)	48,433 (72.3)	36,585 (△24.5)	27,084 (△26.0)	20,773 (△23.9)	21,580 (△20.9)	24,000 (11.2)
BDI (상승률)	718 (△35.0)	673 (△6.3)	1,145 (70.1)	1,349 (31.0)	1,400 (22.2)	1,550 (10.7)
CCFI (상승률)	872 (△19.7)	712 (△18.4)	820 (15.2)	810 (△2.9)	820 (0.0)	880 (7.3)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탱커 용선료는 310K급 VLCC 기준

자료: Baltic 해운거래소, Clarkson, 상해항운교역소, 해외경제연구소 추정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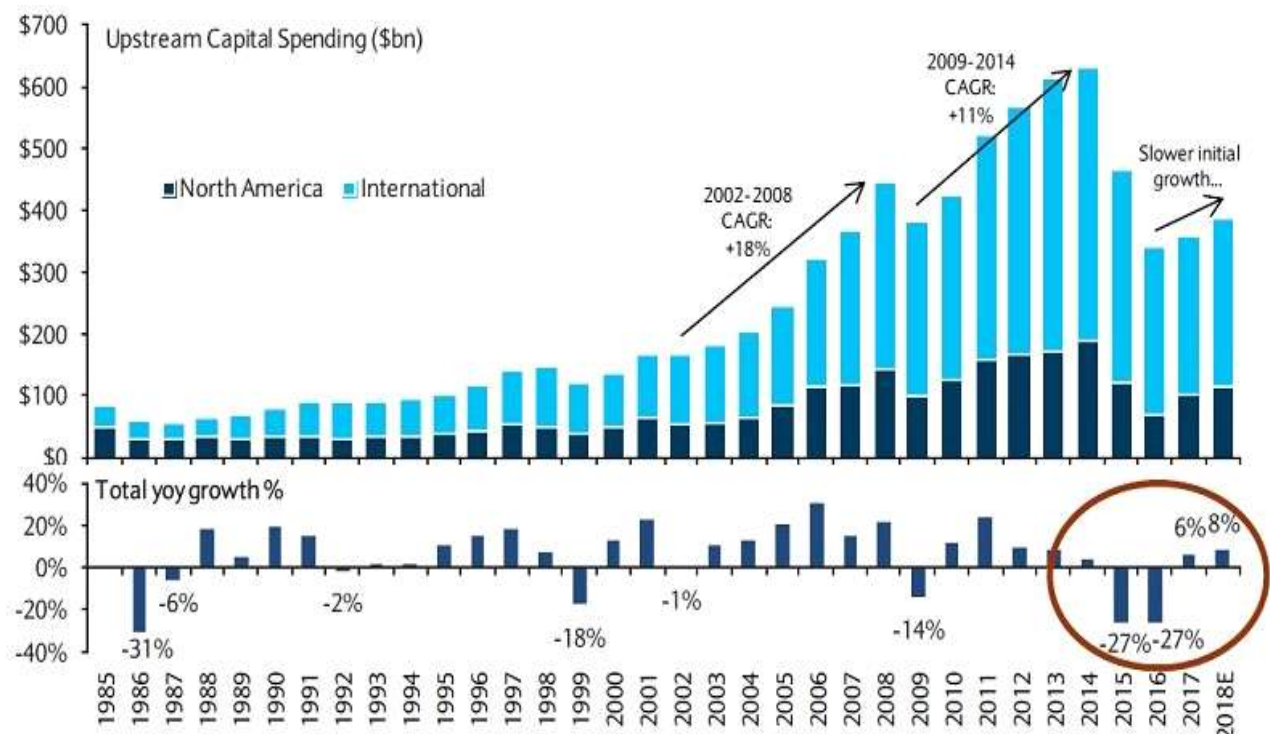
다. 해외자원

□ 글로벌 석유·가스 업스트림 부문 투자액은 2017년 전년대비 6% 증가에 이어 2018년은 전년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 회복세 지속

- 2014년 하반기 유가급락으로 2015~2016년 투자비가 각각 전년대비 27% 급감했으나 2017년 이후 유가상승과 함께 석유·가스 업스트림 부문 투자증가세로 전환
- 2018년 투자액 증가는 유가상승, 채굴비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투자액이 15% 증가한 미국 등 북미 지역이 주도
- 기업별로는 국영석유기업이 2018년 투자를 전년대비 9% 증가하며, 글로벌 투자의 약 63%를 차지한 반면 유럽 국제석유기업은 전년대비 동등한 수준, 미국 국제석유기업은 전년대비 6% 감소
- 금번 증가율은 2002~2008년(연평균 18%↑), 2009~2014년(연평균 11%↑) 상승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나, 2019년은 중동, 일부 해양 자원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석유·가스 업스트림 투자 추이

(단위: 조 달러)



자료 : Barclays Survey(2018.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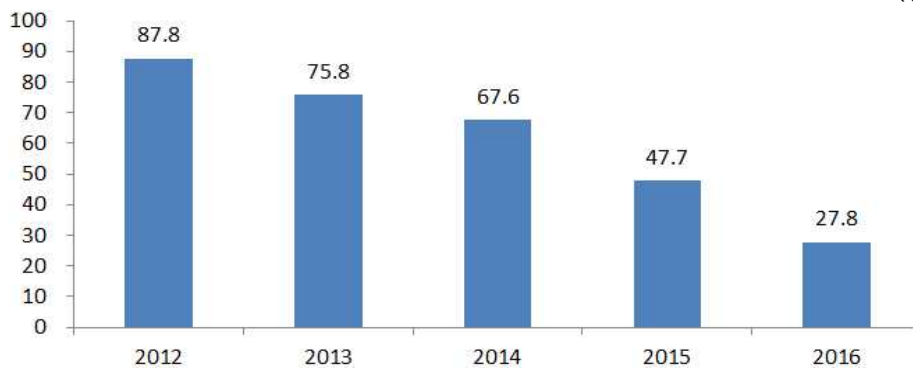


□ 2018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 지원 축소 등으로 둔화 지속

- '14년 하반기 이후 3여 년간 지속된 저유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축소와 민간기업 투자 중심의 정책방향 전환에 불구 성공불용자 폐지, 세제지원 제도 일몰 등으로 민간기업 투자가 둔화되며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진 지속
-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2011년 10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17년 소폭 하락 추정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 2018년 이후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

- '16년 중단되었던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가 '17년 재개되었으나, 종전 성공불용자에 비해 조건이 강화*되어 민간기업 이용률 저조
- * 특별용자의 대출한도 축소(총 사업비의 80→30%), 실패 시 일부 상환의무(대출금의 0→30%), 대상사업범위 제한(민간기업 탐사사업) 등
- 2018년 상반기 광업부문 해외투자 통계액(수은 집계)²⁾은 10.2억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동기 7.1억 달러 대비 44%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2) 수은 해외투자 통계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액과 집계 기준상의 차이로 연평균 20% 정도 낮은 수준



2. 주력 수출산업

가. ICT

□ 2018년 ICT 수출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2,260억달러 내외 전망

- 2018년 9월까지 ICT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1,660억 달러
- 3대 주력품목중 반도체 수출은 호조,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수출은 경쟁심화와 중국기업 성장으로 감소

※ 반도체외 ICT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

-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서버·모바일)와 가격상승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37.3% 증가한 967억 달러

※ 수출증가율(%) : 메모리반도체 53.3, 시스템반도체 5.7

- (디스플레이) OLED 수출(12.6%)은 증가했으나 LCD(△21.1%) 수출 감소로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1% 감소한 207억 달러

※ OLED 수출 비중 : 35%

- (휴대폰) 휴대폰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 부분품 현지 조달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8.0% 감소한 113억 달러
- 2018년 연말까지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며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은 경쟁심화로 어려운 환경 지속

□ 2019년 ICT 수출은 전년대비 약 4% 증가한 2,350억 달러 내외 전망

-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공급능력 확대로 가격은 하락하나 견조한 수요와 한국의 경쟁우위로 수출은 전년대비 약 9% 증가³⁾
- D램은 과점구조로 수급균형과 점진적 가격 하락 예상(~10%), 낸드플래시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15%)이 탑재량 증가를 촉진하여 시장규모 확대 예상
- 중국은 2018년 하반기부터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시작되나 한국과 최소 3년 이상의 기술차로 경쟁은 2020년이후 본격화

3) 2019년 반도체산업 성장률을 IHS는 4.3%, WSTS(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는 5.2%, 가트너는 6.8%로 전망. DRAMexchange는 2019년 D램 출하량이 전년대비 22% 증가하면서 D램 가격은 15~20%까지 하락 전망, 국내업체에는 D램 과점구조, 데이터센터 투자 지속, 제품 고사양화로 급격한 가격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



- (디스플레이) OLED 수출은 증가하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LCD 생산능력 확대에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대비 4% 감소
- (LCD) CSOT, 샤프의 10.5세대 신규 라인 가동으로 공급과잉 지속, 중국의 가격정책에 따라 수출하락폭이 영향을 받을 전망
- (OLED) TV와 스마트폰 중심으로 수요 증가
- (휴대폰) 교체수요가 5G 서비스가 시작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하나 경쟁 심화, 해외생산 확대에 휴대폰 수출은 6% 감소

ICT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9월 ^P	전 망	
ICT	1,762 (2.1)	1,729 (△1.9)	1,625 (△6.0)	1,980 (21.9)	1,660 (15.9)	2,260 (14.4)	2,350 (3.9)
반도체	626	629	622	997	967	1,320	1,435
	(9.6)	(0.4)	(△1.1)	(60.2)	(37.3)	(32.5)	(8.7)
디스플레이	349	325	274	303	207	285	274
	(△7.6)	(△6.8)	(△15.6)	(7.8)	(△9.1)	(△6.0)	(△4.0)
휴대폰	264	290	243	190	113	159	150
	(6.3)	(9.8)	(△16.2)	(△28.8)	(△18.0)	(△16.5)	(△5.8)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2018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405억달러 예상되며, 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224억달러 전망

- 2018년 9월까지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8% 감소한 292억달러 기록
 - 미국시장 수출이 전년대비 16.4% 감소한 94.2억달러에 불과해 주력 수출시장에서 부진으로 자동차 수출이 저조한 상황
- 2018년 9월까지 자동차 부품수출액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172.4억달러
 - 중국 및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부진이 지속,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이 각각 10.7%, 2.4% 감소
- 2018년 연말까지 자동차 수출은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는 회복세이나 미국시장 수출이 여전히 부진 지속 자동차 부품 수출은 주력시장에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9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400억달러 예상되며, 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년대비 4.0% 감소한 215억달러 전망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이슈 등 미국 보호무역 지속 및 경쟁력 하락으로 미국시장 수출은 내년에도 부진할 전망
- 중국 로컬부품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중국내 생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 부품 채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중국 부품수출도 부진할 전망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	2018년		2019년 전 망
				1~9월 ^P	전 망	
자동차수출액 (증감률)	452.4 (△6.6)	401.5 (△11.3)	416.9 (4.0)	292.4 (△8.0)	405 (△2.9)	400 (△1.2)
자동차부품 수출액 (증감률)	268.0 (△4.1)	255.6 (△4.6)	231.3 (△9.5)	172.4 (△3.1)	224 (△3.1)	215 (△4.0)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및 201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다. 일반기계

□ 2018년 일반기계 수출은 4분기에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년대비 약 8.0% 증가한 525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9월까지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한 394.6억달러로 2017년에 이어 건조한 증가세를 유지
- 미국의 경기회복과 중국의 인프라투자 등 기계산업의 호조 요인이 지속되며 수출 증가추세 지속
- 기초산업기계 수출이 14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한 수준이며 산업기계는 134억달러(12.0%),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은 76억달러 (7.2%) 기타기계류는 44억달러 (4.3%)를 나타내어 모든 기종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19년도 일반기계 수출은 증가율이 약 4% 수준으로 둔화된 546억 달러 예상

-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미중간 무역전쟁 등의 악재 요인 영향
- IMF는 2019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0.08%p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무역 악재요인 등으로 산업투자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일반기계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망
				1 ~ 9월 ^P	전 망	
수출 (증감률)	449.8 (△3.0)	441.6 (△1.8)	486.1 (10.1)	394.6 (9.1)	525.0 (8.0)	546.0 (4.0)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일반기계는 MTI code 71(기초산업기계), 72(산업기계), 75(기계요소 공구 및 금형), 79(기타기계류)의 합

자료: 무역협회, 2018~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라. 석유제품

□ 2018년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30% 증가한 450억 달러 예상

- 2018년 9월 수출액은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및 수출단가 호조 영향으로 41.4억 달러 기록
- 전년도 기저효과, 주요국 경기회복과 유가상승에 따른 제품 수출가격 상승 영향,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
- 2018년 9월 기준 11개월 연속 석유제품 월간 수출액 30억 달러 이상 기록 중
- 2018년은 정기보수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 및 제품수출 단가 상승,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으로 큰 폭의 증가 예상

□ 2019년 석유제품 수출액은 올해대비 약 2% 상승한 460억 달러 전망

- 2019년 유가가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액이 올해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유가상승과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은 석유제품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가능

석유제품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 ~ 9월	전망	
수출액	508 (△3.8)	320 (△37.0)	265 (△17.3)	350 (32.4)	343 (33.8)	450 (28.6)	460 (2.2)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부, 2018년 및 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마. 석유화학

□ 2018년에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증가가 이어지며,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490억 달러 예상

- 2018년 9월 기준 10개월 연속 석유화학 월간 수출액 40억 달러 이상 기록 중
- 유가 및 제품단가 상승 및 국내 신규설비 정상가동에 따른 물량 확대와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등 역내 수요 증가 영향
- 상반기 수출은 세계 경기 호조 및 역내 공급부족 상황이 유지된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증가
- 연말까지 NCC 및 PE 등 다운스트림 설비 정기보수 일정에 따른 생산 감소 영향으로 수출물량 감소가 예상되나 전년동기 대비 높은 수출단가 영향으로 수출액 증가세는 이어갈 전망

□ 2019년 석유화학 수출액은 올해대비 약 2% 하락한 480억 달러 전망

- 2019년 유가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에탄 크래커 설비 가동개시 본격화에 따른 공급확대로 수출단가 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요둔화 영향 등으로 수출액 감소 전망

석유화학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 ~ 9월	전망	
수출액	482 (△0.3)	378 (△21.6)	362 (△4.3)	447 (23.6)	377.2 (12.4)	490 (9.6)	480 (△2.0)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부, 2018년 및 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바. 철강

□ 2018년 철강수출액은 전년대비 2% 감소한 33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9월까지 수출액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261억달러 기록
-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및 일본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4%, 3.0% 증가했으나, 철강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수출이 전년대비 16.2% 감소
- 하반기 미국 수입쿼터에 도달함에 따라 그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 및 일본 수출 호조로 감소폭이 줄어들 전망

□ 2019년 철강수출액은 전년대비 2% 증가한 341억달러 전망

- 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제품가격이 상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특히 아시아 인프라 건설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 및 중국 철강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공급 감소는 철강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등 보호무역 확대 추세가 철강수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

철강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355.4 (9.2)	302.0 (△14.9)	285.4 (△5.6)	342.1 (20)	261 (△2.6)	335 (△2.0)	341 (2.0)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부, 2018년 및 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혁신성장산업

가. 서비스

(1) 콘텐츠⁴⁾

□ 2018년 콘텐츠 수출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87억달러 내외 전망

- 상반기 수출은 게임, 캐릭터, 영화 수출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27.0% 증가한 34.5억 달러 기록

※ 분야별 수출비중 : 게임 62.1%, 캐릭터 8.4%, 지식정보 8.1%, 음악 5.9%, 방송 5.6% 순

- 중국의 한류금지령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영화 '물괴' 상영 승인(9월)으로 콘텐츠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 게임은 중국의 규제강화⁵⁾로 4월부터 한국산 게임 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 게임에 대한 승인이 중단되어 수출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

□ 2019년 콘텐츠 수출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한 105억달러 내외 전망

- 캐릭터, 방송, 음악은 해외진출 확대로 수출 호조세 지속 전망
- 게임은 중국의 규제 강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분류 추진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수출 둔화 가능성이 커짐
-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올렸으며 2019년 5월 세계보건총회 논의 후 2022년부터 적용할 계획

콘텐츠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6월 ^p	전 망	
수출 (증감률)	60.1	68.9 (14.7)	34.5 (27.0)	87.0 (26.2)	105.0 (20.7)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서 정의된 출판, 만화, 음악(공연 포함),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을 포함

5) 어린이와 청소년 근시 예방을 위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총량 규제', 중국내 온라인 게임수를 관리하는 '온라인게임 총량제'를 발표



(2) 소프트웨어⁶⁾

□ 2018년 소프트웨어 수출은 전년대비 약 2.6% 증가한 75억달러 내외가 될 전망

- 2018년 6월까지 소프트웨어 수출은 32.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
- 패키지소프트웨어 수출은 1.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3.7% 증가, IT서비스 수출은 30.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기존 제품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해외진출 확대로 수출이 확대됨
- 2018년 연말까지 기업들의 수출지역 다변화 노력,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수출은 소폭 증가 예상

□ 2019년 소프트웨어 수출은 전년대비 약 4% 증가한 78억달러 내외가 될 전망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국의 투자 증가, 스마트팩토리 등의 국내실적 확보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삼성SDS와 LG CNS는 2018년에 계열사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부터는 해외진출 추진 전망

소프트웨어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6월 ^p	전 망	
수출	70.4	73.1	32.6	75.0	78.0
(증감률)		(3.8)	(1.4)	(2.6)	(4.0)

주: 1.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ICT통합분류체계 개정('17)으로 BPO는 패키지SW에서 IT서비스로 이전되고 게임SW가 포함됨.
게임은 콘텐츠 수출에도 포함되어 SW수출에서 제외

3: 2016년부터 개정된 ICT통합분류체계가 적용된 통계자료가 발간됨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소프트웨어 산업은 일반적으로 패키지 SW와 IT 서비스 분야를 포함.



(3) 의약품

□ 2018년 의약품⁷⁾ 수출액은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급증,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38억 달러 전망

- 내수시장 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수출판로를 확대한 결과 2014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 중
- 2018년 9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등의 유럽 지역 수출 급증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5.4% 증가한 26.5억 달러 기록
- 내수 시장은 제네릭 및 개량 신약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정부의 약가 통제 및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2018년 연말까지 바이오 시밀러 수출 중심 기조 지속 예상

□ 2019년 수출액은 올해대비 약 10% 증가한 42억 달러 전망

-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지속 기대

의약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17.3 (15.2)	22.9 (32.6)	27.4 (19.5)	31.7 (15.8)	26.5 (25.4)	38.0 (19.9)	42.0 (10.5)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2018년 및 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7) MTI Code: 2262



나. 에너지산업

(1) 태양광

□ 2018년 태양광 수출액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27억달러 예상

- 2018년 9월까지 태양광 수출액은 전년대비 10% 하락한 19.8억 달러 기록 중
- 세계 태양광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태양광 제도 변경에 따른 수요 절벽으로 2018년 6월 이후 제품 가격이 급락
- 중국 이외의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양호해 전년대비 수출물량은 비슷한 상황

□ 2019년 태양광 수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3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9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20GW가 전망됨에 따라 태양광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제품 가격도 태양광 수요 증가로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수출액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

태양광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22.8 (34.9)	25.8 (13.1)	31.4 (21.7)	31.5 (0)	19.8 (△10)	27 (△14.3)	30 (11.1)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태양광 수출액은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의 합

자료: 무역협회, 2018년 및 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리튬이온배터리

□ 2018년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액은 4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9월까지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31.7억달러를 기록 중
- IT기기용에 국한되었다가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용도가 확대되고 있음

□ 2019년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액은 전년대비 22.2% 증가한 55억달러 전망

-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 수요도 본격적으로 형성 중
-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리튬이온배터리가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리튬이온배터리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22.7 (0)	20.3 (△10.5)	23.2 (14.2)	35.2 (51)	31.7 (22)	45 (27.8)	55 (22.2)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리튬이온배터리는 HS코드 85076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18년 및 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LED

□ 2018년 LED 수출액은 65억달러에 달할 전망

- 2018년 8월까지 LED 수출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46.6억달러 기록 중
- IT 및 자동차용 수요 증가 및 LED 조명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 대폭 증가

□ 2019년 LED 수출액은 전년대비 5% 증가한 68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자동차 및 TV 등 LED 응용분야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조명분야에서 LED 채택이 늘어날 전망

LED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51.5 (△7.9)	51.4 (△0.2)	56.7 (10)	61.9 (9.2)	46.6 (2.2)	65 (4.8)	68 (5)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LED HS코드 8541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18년 및 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다. ICT 융합 : 로봇⁸⁾

□ 2018년 산업용 로봇 수출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1.6억달러 내외가 될 전망

- 2018년 9월까지 산업용 로봇 수출은 1.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1% 감소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39%)과 인도(26%)이며 대인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했으나 대중국 수출은 45% 감소
-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IT제품의 생산자동화를 위한 제품 비중이 높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투자가 수출을 견인⁹⁾

□ 2019년 산업용 로봇 수출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8억달러 내외로 전망

-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투자 확대(IT 등)와 한국기업의 로봇 투자증가로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¹⁰⁾
- 한국기업으로 현대중공업지주가 대표기업이었으나 2017년부터 한화정밀기계¹¹⁾, 두산로보틱스, LG전자¹²⁾ 등이 진출
- 현대중공업지주는 중국기업과 JV를 설립하고 2019년 상반기까지 중국에 공장건설 추진

산업용 로봇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 망	
수출 (증감률)	1.69 (△5.8)	2.35 (39.7)	1.79 (△23.8)	1.99 (10.8)	1.22 (△22.1)	1.63 (△18.0)	1.79 (10.0)

주: 1.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산업용 로봇(HS코드 84795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18~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로봇을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하며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

9) 세계 산업용 로봇시장은 일본과 유럽기업의 과점구조(ABB(스웨덴), 쿠카(독일, '16년 중국기업이 인수), FANUC(일본))로 인지도가 낮은 국내기업의 고객 다변화는 쉽지 않은 상황

10) 한국의 기술력은 최고 기술국인 일본 대비 85% 수준

11) 반도체 제조용 로봇 생산

12) 국내 산업용 로봇기업 로보스타 인수('18.5)



라. 미래운송기기·소재산업 : 항공기 및 부품

□ 2018년 항공기 및 부품 수출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27억달러 수준 전망

- 2018년 8월까지 항공기 및 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0% 감소한 19.1억 달러 기록
- 2018년 3월 대태국 T-50 1차 수주물량 납품 종료로 항공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6.8% 감소한 3.8억달러 기록하였으며, 완제기 수출 비중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항공기 부품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한 15.3억 달러 기록하며 보합세
- 2018년 항공기 분야 수출은 대이라크 T-50 수주물량 추가 납품, 수리온 인도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약 35.2% 감소한 약 5억달러 수준 전망
- 2018년 항공기 부품은 전년대비 약 5.2% 감소한 22억달러 내외가 될 전망

□ 2019년 항공기 및 부품수출은 전년대비 3% 증가한 28억달러 수준 예상

- KAI의 미국 고등 훈련기 수주 실패 등 추가적인 수출계약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완제기 수출은 기존 계약분에 한정될 전망이며 2018년 대비 약 9% 하락한 5억달러 내외 전망
- 완제기와 달리 부품 수출은 2019년 중 RPK(유상여객 킬로미터)가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항공산업 성장의 영향으로 23억달러 수준 전망

항공기 및 부품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망
			1~8월 ^p	전 망	
완제기수출액 (증감률)	2.5 (44.6)	8.1 (225.7)	3.8 (△36.8)	5.2 (△35.2)	4.8 (△8.6)
항공기부품 수출액 (증감률)	20.2 (3.7)	23.1 (14.0)	15.3 (△0.7)	21.8 (△5.2)	23.2 (6.3)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MTI 747(낙하산 제외)

자료: 무역협회, 2018년 및 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마. 유망소비재

(1) 화장품

□ 2018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23% 증가한 61억달러 내외

- 2018년 9월까지 화장품 수출은 47.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6% 증가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41.8%), 홍콩(22.6%), 미국(8.4%), 일본(4.8%) 순이며 사드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재 관세 인하 등으로 인해 중화권 의존도가 높아짐¹³⁾

※ 중국의 화장품 평균 관세(%): (기준) 8.4% → (7월~) 2.9%

※ 중국 수출비중(중국+홍콩, %): ('17) 62.1→('18.1~8) 64.5

-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약진으로 화장품 수출은 성장세 지속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소비 위축, 로컬 기업의 성장에 따른 중저가 시장 경쟁심화로 2018년 연말까지 수출증가율 둔화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률(%): ('18.1분기) 6.9% → (2분기) 6.7% → (3분기) 6.5%

□ 2019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70억달러 내외가 될 전망

- 수출지역 및 수출품목 다변화로 수출은 증가하나 K-뷰티에 대한 높은 인지도 대비 낮은 브랜드 파워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수출은 기초제품, 마스크팩 중심에서 색조, 헤어 등으로 다변화

화장품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 망	
수출	19.0	29.3	41.9	49.6	47.1	61.0	70.0
(증감률)	(52.6)	(54.6)	(43.1)	(18.3)	(31.6)	(23.0)	(14.8)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MTI 227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13) 국가별 비중은 1~8월 누적 기준



(2) 패션의류

□ 2018년 패션의류 수출은 전년대비 약 2.7% 증가한 26억달러 내외 예상

- 2018년 9월까지 패션의류 수출은 19.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
 - 미국 소비 호조, 중국의 소비재 관세 인하(7월)¹⁴⁾,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확대에 의한 부자재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 ※ 중국의 패션의류 평균 관세(%): (기준) 15.9% → (7월~) 7.1%
 - ※ 대중국 수출 증가율(%): (6월)1.3 → (7월)7.0 → (8월)12.5 → (9월)28.2
 - 주요 수출 대상국은 베트남(24.9%), 중국(19.2%), 일본(15.8%), 미국(12.6%) 순이며 4개국 수출비중이 총 수출의 72.6%를 차지¹⁵⁾
- 패션의류는 계절을 선행하여 발주되며 4분기에는 겨울상품보다 단가가 낮은 봄상품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증가율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패션의류 수출은 전년대비 약 2.6% 증가한 26억달러 내외가 될 전망

- 미국 소비 호조,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

패션의류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1~9월 ^P	전 망	
수출 (증감률)	27.1 (2.9)	25.8 (△9.5)	25.3 (△2.2)	25.0 (△1.1)	19.3 (2.9)	25.7 (2.7)	26.3 (2.6)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MTI 441(의류), 5212(신발) 기준

자료: 무역협회 통계시스템, 2018~2019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14) 패션의류의 관세는 기존 평균 15.9%에서 7.1%로 인하

15) 국가별 비중은 1~8월 누적 기준



(3) 가공식품

□ 2018년 가공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54억 달러 전망

- 2018년 1~9월중 가공식품 수출¹⁶⁾은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인 40억달러를 기록
- 9월까지 주요 품목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곡물 조제품 12.1%, 각종 조제식료품 6.0%, 음료와 알코올 및 식초 15.6% 등 주력제품들은 건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담배류만 21.1% 감소
- 큰 폭의 담배수출 감소는 1위 수입국인 UAE가 담배에 최악세 명목으로 10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가 급감한 데 따른 것임
- 대UAE 담배수출에서만 9월까지 3억달러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가공식품 수출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담배 한 품목이 전체 가공식품 수출증가율을 하락시킴
- 이러한 추세는 단기적 해소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금년 중 가공식품 수출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4억달러 내외가 될 전망

□ 2019년도 가공식품 수출은 금년대비 약 6% 증가한 57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아랍에미레이트 담배수출의 영향은 2018년에 모두 반영되어 2019년에는 다시 정상적인 수출증가가 가능할 전망

가공식품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망
				1 ~ 9월 ^P	전 망	
수출	46.6	50.0	53.8	40.0	54.0	57.0
(증감률)	(1.5)	(7.3)	(7.4)	(△0.1)	(0.4)	(5.6)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16) 가공식품은 HS Code 16~24로 설정하였으며 동식물성 재료의 가공식품, 기호식품, 음료, 담배 등을 포함하고 있음